

開城 服飾의 研究

—실물을 통한 실증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경 자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홍 나 영

目 次	
I. 서 론	2. 평상복
II. 개성지방의 개관	IV. 결 론
III. 개성지방의 복식	참고문헌
1. 혼례복	

I. 서 론

민속은 그 지방의 사회성과 역사적 요인 그리고 풍토적 조건인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相違한 문화 영역이 변형 발전된다.

우리의 생활문화의 한 분야인 衣文化 역시 한반도라는 풍토 여건하에 정치경제 정신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어느 특정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가 인간의 복식생활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할 때, 건축, 음악 등 타 분야의 문화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服飾文化도 지역적 상이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상류계층에 국한됐던 연구대상을 넓혀 복식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 복식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는 일제 시대에 실시된 생활실태조사, 제주도 민속복식에 관한 연구,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한국 민속종합보고서」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복식 연구의 하나로써 기호지방에 속하면서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복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研究內容은 우선 개성지방의 氣候 및 歷史的 背景 등 개성지방의 概觀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타지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성지방의 특징이 드러나는 혼례복과 평상복의 순으로 알아보았다. 지역적 한계성으로 직접 방문조사할 수 없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가 확실한 유물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고, 유물 고찰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성출신 인사들의 면담을 참고로 하였다.

개성은 옛 고려의 수도로서 고려문화의 잔재가 개성복식에 스며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개성복식의 연구가 고려복식을 밝히는데 작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개성지방의 개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옛 고려의 수도였던 開城은 해방후 북위 38도선 바로 남쪽에 위치한 남한 최북단의 도시가 되었다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휴전선 북방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개성은 서울 북서쪽 78km 지점, 한강과 예성강의 하류에 발달한 좁은 개성분지에 자리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한 편이나 대륙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10.4℃, 1월 평균-

6.2℃, 8월 평균 25.3℃이고 연강수량은 1,253mm이다. 평균 初氷 10월 20일로 겨울추위가 서울보다 약 1주일 먼저 온다.

松嶽이라고도 불리우는 개성은 원래 고구려의 땅으로 扶蘇岬이라 일컫던 곳이다.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후 孝昭王3년에 城을 쌓을 사실이 「三國史記」에 보이는데, 그 때 벌써 이곳을 松嶽郡으로 불렀다. 그 후 고려 태조가 定都하면서 開州라고 하였고 뒤에 開京, 開城, 皇都, 皇城, 京都, 京城, 松京, 松都, 中京, 北京 등 허다한 칭호가 나오게 되었다. 이 중에서 고유명사적 칭호를 보이는 것은 '開'字로 표현되는 것과 '松'字로 표현된 것 2종류 뿐이며 문자적으로는 '開城'이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다른 것은 別稱 내지 일시적 칭호에 지나지 않았다¹⁾.

松都를 개성이라 하기는 成宗14년 즉, 고려 개국 후 90년부터인 듯하다.

개성은 고려 태조 王建이 도읍으로 정한 뒤 고려 역대의 王都로 아주 정해지고 말았다. 다만 고려 개국 후 315년 되던 해 蒙古의 침략을 견디기 어려워 江華로 천도하여²⁾ 39년 후, 즉 元宗 12年 庚午 5月 27日 환도하기까지, 다시 忠烈王 17年 庚寅 12月 18日 哈丹(카탄) 兵禍를 피하여 강화도로 옮겼다가 19年 壬辰 正月27日 환도하기까지 전후 40년간, 別都로의 遷都年間을 빼놓고는 430여년간 고려조 도읍이었고, 그후 조선 때에 들어서도 太祖, 正宗, 太宗 3代를 두고 도읍한 때가 가끔 있었다.

즉 고려조의 도읍은 470년간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던 송악이 大本이요, 강화가 40년간 別都로의 의미를 갖고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개성은 인삼의 재배지라는 사실과 함께 상업이 발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역사는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를 창건하여 개성에 도읍을 정한 왕건³⁾은 송악지방의 신흥 귀족의 후예로서 그의 조상은 대대로 唐과의 무역에 종사하여 富를 축적함으로써 상당한 해상 세력을 이룬 일족이었다. 이 때 송악 근처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국제무역항의 구실을 하였는데, 근처의 송악도 일국의 수도로서 그리고 외국사신의 빈번한 왕래에 의한 公貿易과 私貿易이 번창하여 상업도시로서도 발전하였다. 또 개국 초부터 설치한 시전은 조선왕조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에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서울의 육의전에 맞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였다.

李瀾은 그의 僊說⁴⁾에서 개성인이 상업에 많이 투신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우면서 서쪽으로 중국무역과 연결될 수 있었던 점, 둘째, 조선왕조 건국후 개성인들이 이에 불복하였으므로 조선왕조에서도 이들은 등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곳 사대부의 후예들이 학문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반이조적 기질을 들지 않더라도 개성인은 고려시대를 통하여 활발히 해외무역을 벌였던 고려 상인의 핵심을 이루는 商人群이었으며,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그 쇠국주의 정책 때문에 민간인의 해외무역을 불가능하게 되자 국내 전 상업계를 장악하는 상인군이 되었던 것이다⁵⁾. 국내 상업계에 있어서 개성 상인의 위치는 조선초기부터 확고한 것이어서 그들은 서울 상인과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왕조의 초기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절 일행이 무역 목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면 대개 일차적으로 서울과 개성상인이 이를 매수하였다⁶⁾. 이에 따라 개성은 진귀한 직물과 皮物, 그리고 보석의 거래처가 되었으며, 개성상인의 위치는 왕조 후기로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고해져서 개성은 실제로 전국 제일의 상업도시로

1) 고유섭(1977), 「송도의 고적」(서울: 열화당), pp. 23~24.

2) 高宗 20年 壬辰 6月 20日.

3) 재위 918~943.

4) 「星湖僊說」人事門 生財條.

5) 강만길(198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서울: 고려 대학교 출판부), p. 103.

6) 「世宗實錄」卷 九十五 世宗 24年 戊辰條.

7) 강만길(1983), pp. 103~106.

발전해 갔다”.

II. 개성지방의 복식

1. 혼례복

개성지방의 혼례복은 원삼과 함께 그 首飾에서 독특함이 드러난다. 개성에서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루는데, 사흘 동안 잔치가 베풀어지며 매일 신부의 옷차림이 바뀐다고 한다. 첫날에는 큰 머리⁸⁾에 원삼을 입고, 둘째날은 족두리에 원삼, 세째날은 다홍치마에 노란 저고리로 바꾸어 입는다. 원삼 안에는 노란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지만, 다른 지방과는 달리 치마·저고리 위에 연두 마고자를 입었고, 당의는 입지 않았다 한다.⁹⁾ 이는 구한말 마고자 전래 이후부터의 풍습이었을 것이나, 이남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차림새인 것이다.

圖1¹⁰⁾에서 혼례 첫날의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의 머리 모양은 큰머리라고 하는데, 머리 땅을 것을 사각으로 틀어올려 그 위에 각종 색상의 장식꽃¹¹⁾을 꽂은 것이다. 개성지방의 머리장식은 서울이나 평양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는 보통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의 일반 가정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머리어멈’이라 불리우는 전문적으로 머리 꾸미는 이가 있어, 잔치가 있을 때면 이들에게 머리 치장을 의뢰하였다고 한다.¹²⁾



〈圖 1〉 개성지방의 혼례복: 혼례첫날

잔치 둘째날에는 원삼에 족두리를 쓰는데(圖 2)²⁷⁾ 개성 족두리는 서울의 것과 보석의 꾸밈새가 다르다. 즉 나비나 봉황 등의 떨장식이 없고 그 대신 밀화장식이 화려하다(圖 3¹⁴⁾), 매죽잠 등 큰비녀를 꽂고 앞에는 땡기를 비녀 좌우에 감아 드리우는데, 서울에서는 이를 앞땡기라고 부르는데 비해 개성에서는 ‘발땡기’라고 하며,¹⁵⁾ 뒤에는 ‘진주땡기’(圖 4)¹⁶⁾를 드린다.

8) “신혼 첫날에는 족두리를 쓰지 않고 머리에 긴 비녀를 꽂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각형으로 테를 만들어서 여기에 견사를 곱게 물들여 만든 꽃과 구름모습은 아름답고, 은은하고, 장중하게 조화를 이루어 조립한 이른바 큰 머리를 썼었다.”

개풍군지 편찬 위원회(편) (1984), 「개풍군지」, p. 768. ‘혼속’에 관한 내용 中에서.

9) 박정온 여사(96세) 증언.

10) 최한국 박흥운(박정온 여사의 4녀) 부부혼례 사진. 1940년대.

11) 꽃은 철사에 색색의 털을 끼워 넣어 만든 것으로, 상자에 넣어 판매하거나 세내어 주는 집이 있었다고 한다.

12) 이병림 교수(61세), 박정온여사 증언.

13) 박민중 교수(박정온 여사의 장남) 혼례 사진. 첫날은 신식으로 하고, 둘째날에 원삼, 족두리를 하였다고 한다.

14) 출처: 「샘이 깊은 물」, 1985. 5. pp. 95~97.

출처: 허동화(1987), 「Crafts of the Inner Court」(서울: 한국자수박물관), p. 79.

15) 박정온여사 증언.

16) ‘진주땡기’(방언)이라고도 부른다. 이병림교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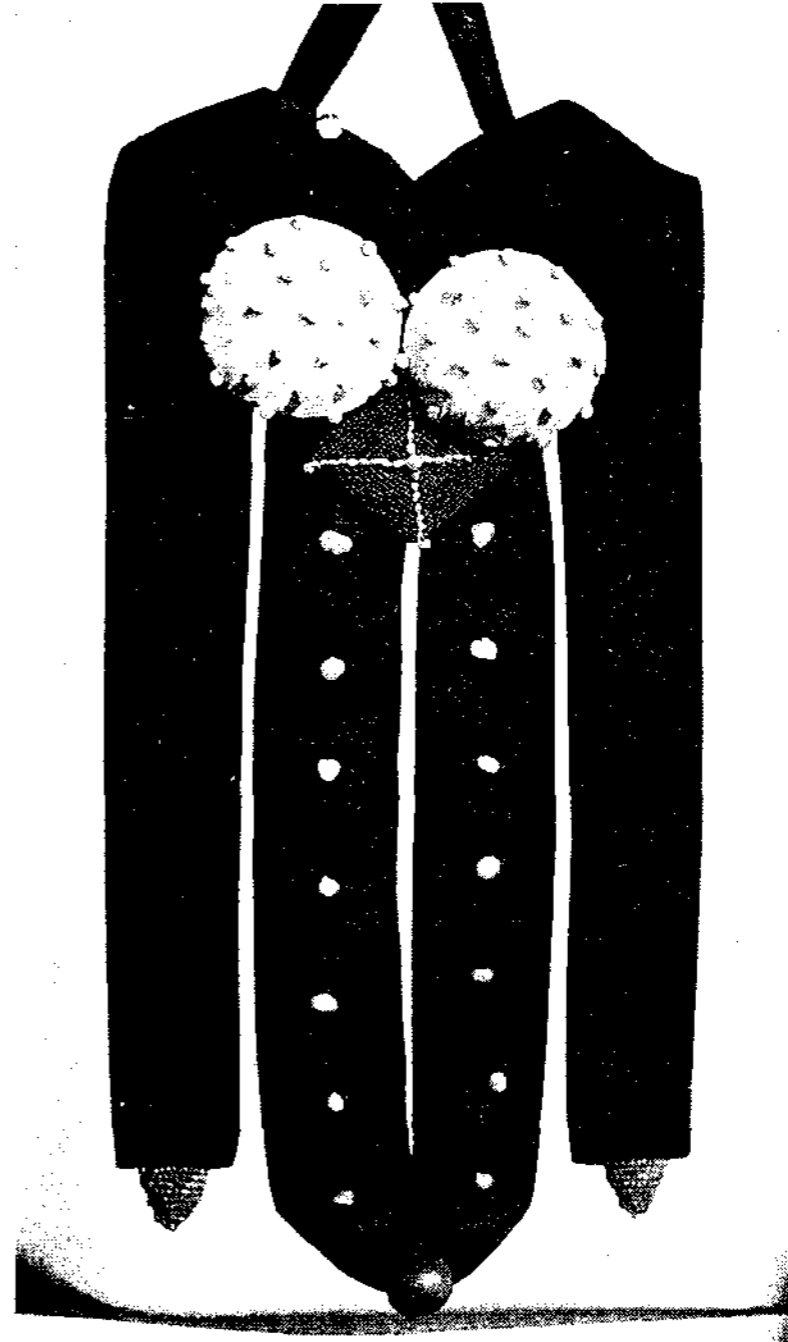


〈圖 2〉 개성지방의 혼례; 혼례들째날



〈圖 3〉 개성족두리

이 역시 기호 이남의 큰댕기나 평양의 고이댕기와는 다른 개성 특유의 수식이다. 또한 머리 뒤편에 커다란 사각형의 꽃장식을 한다.¹⁷⁾



〈圖 4〉 진주댕기

노리개는 대삼작 등을 하기도 하나, 대개는 있는 대로 모두 좌우에 달았다고 한다.¹⁸⁾

한편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으로 혼례를 치르지만, 혼례를 마치고 본가로 갈 때에는 신부집에서 준비한 '관례벗김'을 입는데, 두루마기에 전복차림이라고 하며, 신랑이 어릴 경우에는 분홍 명주 두루마기에 연두 감사 전복을 입었다고 한다.¹⁹⁾

신부의 원삼은 수구와 앞뒤 도련, 옆트임 등에紅色선이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사진이나 유물로서 확인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성 원삼(圖 5)²⁰⁾은 녹색 모본단 홉겹으로 앞뒤길의 길이의 차가 없는 것이다. 도련과 단, 옆트임에는 홍색선이 둘러있다. 동정은 원삼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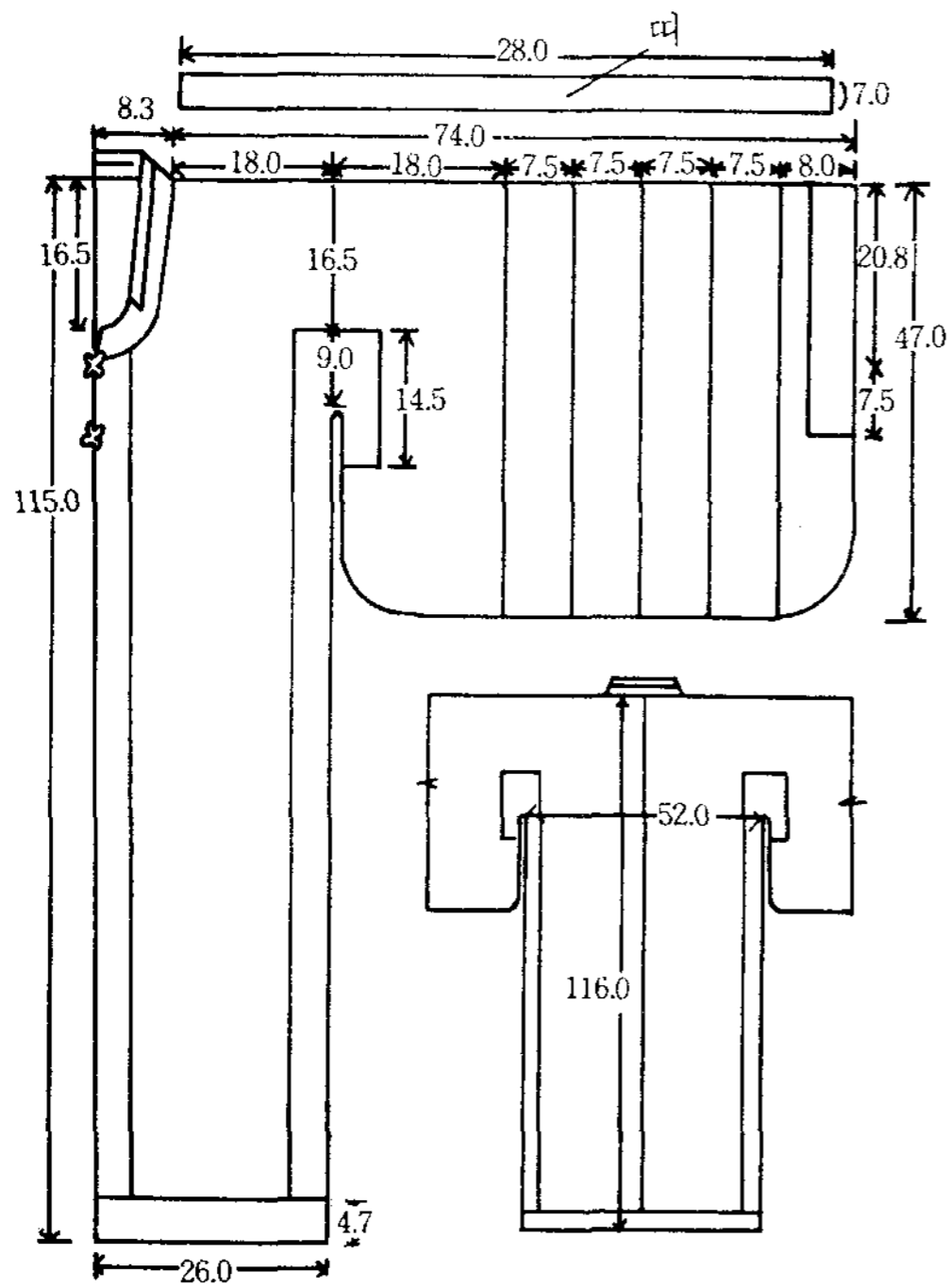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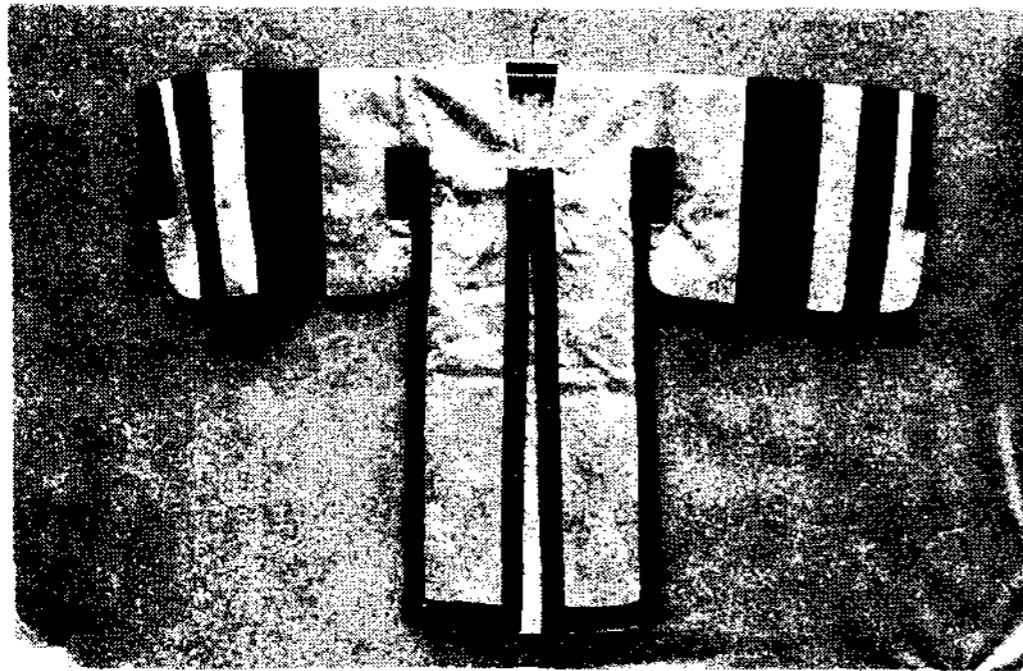
17) 박정은 여사, 백신옥 여사, 이병림교수 증언.

18) 박정은 여사 증언.

19) 박정은 여사 증언

20) 안현민 교수(79세) 기증. 유물번호34.

위에 직접 달았으며, 소매는 남, 주홍, 황, 홍색의 색동이 그리고 백색의 한삼의 달려 있고 수구에도



〈圖 5〉 이화여대 소장 개성 원삼의 사진 및 실측도

홍색선이 둘러 있으며, 깃 아래에는 국화모양의 은단추를 달았다.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에는 홍색선을 곁에 두른 녹원삼이 4벌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벌²¹⁾은 개성원삼이 확실하며 나머지 2벌도 개성의 원삼으로 추측된다.²²⁾

한편 개성에서는 단오 때 여자들이 성장을 하고 敬德宮에 모여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만월대에 모여 씨름을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²³⁾ 특히 결혼 후 처음 단오를 맞는 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새댁을



〈圖 6〉 단오때의 신부

21) • 유물번호6812 ; 박정은여사 기증. 도류불수단. 뒷 길이가 길다. 진동이 좁다(22.5cm). 1910년대 원삼.

• 유물번호7154 ; 백신옥여사 기증. 모본단, 인조견. 뒷길이가 길다. 1940년대 원삼.

22) • 유물번호1069 ; 기증자 불명. 앞 뒤의 길이가 같다. 1900년대 반가용 원삼.

• 유물번호6538 ; 강화읍 김현순으로부터 구입. 모본단. 뒷길이가 길다. 1930년대 원삼.

23) 「松京誌」卷二 風俗編 ; “五月五日 閭巷之兒女爲鞦韆男爲角觥戲”

「開城誌」卷四 風俗編 ; “五月五日 女人盛裝會敬德宮鞦韆男子集滿月臺角觥戲”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네 뛰기 풍속이 전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고려때 최초의 문헌기록이 보이고(「高麗史」列傳 崔忠獻傳), 13세기 고려 중엽에는 이미 단오일에 그네 뛰기가 우리민간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최상수(1988), 「한국씨름과 그네의 연구」(서울 ; 정동출판사), p. 106.

혼인날과 같이 성장을 하게 하고 잔치 음식을 차려 경덕궁²⁴⁾에 가서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이는 이웃에게 새 며느리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²⁵⁾ 圖 6²⁶⁾은 일제시대에 경덕궁에서 촬영한 단오 때의 신부 뒷모습으로 진주땀기를 드러낸 모습이 잘 나타난다.

2. 평상복

1) 머릿보

머리수건을 개성에서는 “머릿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 각 지방에서 머리수건을 흔히 사용하지만, 개성의 머릿보는 매우 특징적이다. 타지방의 머리수건이 대개 흰색 장방형의 명주나 무명을 접어 쓰는데²⁷⁾ 비해(圖 7), 개성에서는 정방형의 자주색 명주에 솜을 두어 손 누비한 머리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머리에 썼다(圖 8)

개성의 머릿보는 자주색만을 사용했다고 하며 사방 90여cm의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어 사용한다. 반으로 접은 한쪽에는 명주 형질을 덧대는데, 이것은 머릿 기름 등으로 때가 타면 덧댄 천만 때어

세탁하기 위한 것이다.

머릿보는 외출시 착용하는 것으로 겨울철엔 갖저고리에 머릿보를 쓰고 바깥출입을 하였다고 한다. 예의를 갖추어야 할 외출에는 두루마기에 조바위나 남바위 등을 썼다²⁸⁾고 하나, 이는 개화기 이후의 차림일 것이고 그 이전에는 갖저고리에 머릿보를 착용하고 그 위에 다시 쓸치마로 얼굴을 가렸다²⁹⁾고 한다.

2) 쓸치마

개성에서는 쓰개치마를 “쓸치마”라고 불렀는데 치마폭을 일반 치마와 같게 하지만 치마허리는 얼굴을 두를 정도만 하여 일반 치마보다 주름을 깊게 잡았으며 치마허리가 약간 길게 나와 안에서 손으로 쥘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³⁰⁾(圖 9).

반가에서는 혼수용으로 명주 겹 쓸치마를 지어 갔으며, 內外를 위해 사철 사용했다고 하나, 점차 아얌, 풍차, 남바위, 조바위 등을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한다.³¹⁾ 한편 집안에서도 사랑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쓸치마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³²⁾

24) 증언자들이 모두 “추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덕궁은 개성 남대문에서 남쪽 500m 되는 철도 선로의 남쪽에 있다고 한다.

이 궁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潛邸로서, 본래의 이름은 楸洞宮이다. 소재지의 洞名이 속칭 “가래울”인데 한자로 “楸洞”이라고 쓴다. 태조는 이 邸室에서 고려조를 쓰러뜨릴 생각도 하였고, 이조 초대의 과거도 이 궁에서 행하였다. 태조는 즉위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기까지 3년을, 또 2대 정종이 즉위후에도 2년 동안 이 궁에서 지냈다. 제3대 태종도 이 건물을 수리하여 경덕궁이라 개칭하고 王居로 삼았다. 당시의 규모는 상당히 광대하였던 것 같으나, 임진왜란 때 兵火로 타버리고 황폐하였던 것을 제17대 효종이 그의 8년에 개축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옛날과 비교되지 않으며 겨우 그 유적을 보존하는데 불과하였다고 한다.

개성상인회(編)(1970), 「개성」(서울: 예술춘추사), pp. 188-189.

고유섭(1977), p. 84.

25) 박정은여사. 안현민교수 증언.

26) 仲摩 照久(編)(昭和 5年 9月), 「朝鮮地理風俗·上」(東京: 新光社), p.216.

27) 김영숙(1988), 「도해 한국복식사 사전」(서울: 민문고), p. 186.

“평안북도와 황해도 일부에서는 矩形의 천을 네겹으로 접어서 머리로부터 이마까지 덮는데 정수리는 내놓고 머리 뒤에 고를 내어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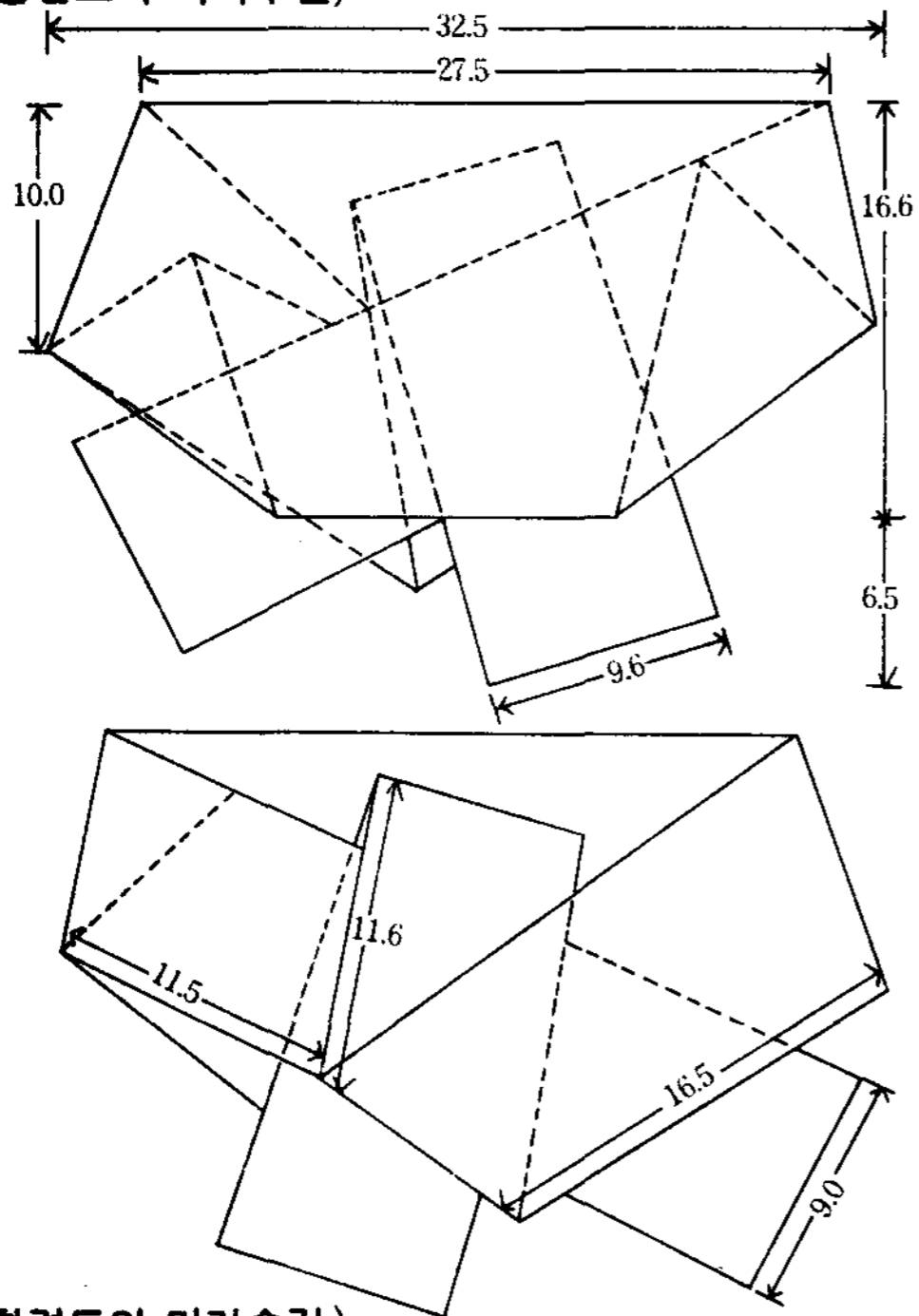
강원도와 함경도에서는 정방형의 천을 세모나게 접어 머리 전체를 덮는데, 끈을 매지 않고 접어 넣는다. 경상도에서는 명주수건을 좁고 길게 만들어 머리에서부터 양볼과 턱까지 감싸고 다시 정수리 위에 올려맨다. 제주도에서는 평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머리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좁고 긴 무명수건을 한겹으로 만들어 이마는 약간 가리우고 머리를 덮으며 간단하게 맨다.”

28) 이병림교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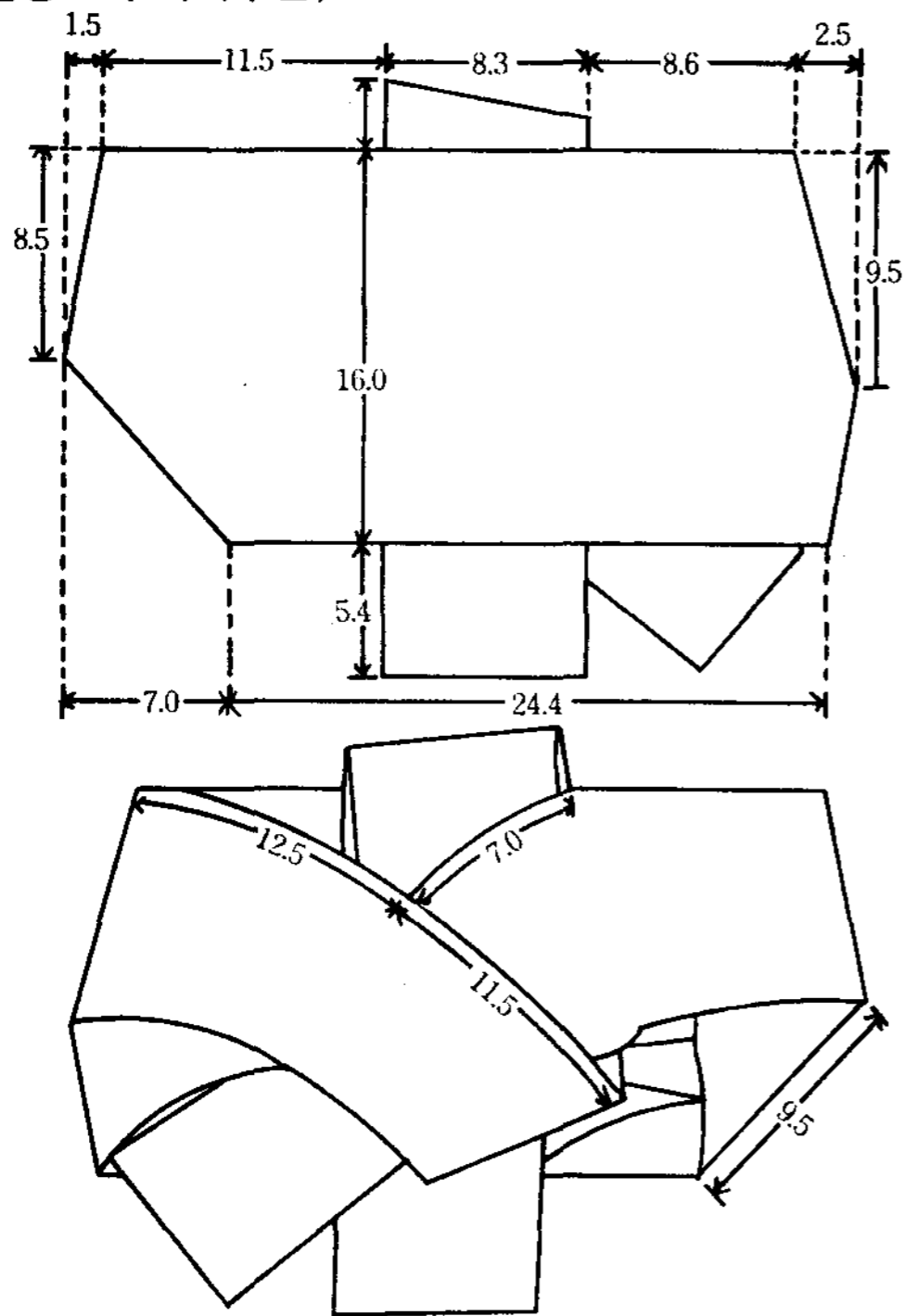
29) 박정은여사 증언.

30) 박정은여사, 이병림교수 증언. 圖9의 쓸치마는 이병림교수의 모친이 생존시 개성식으로 만들어 이대에 기증했던 유물이다. 유물번호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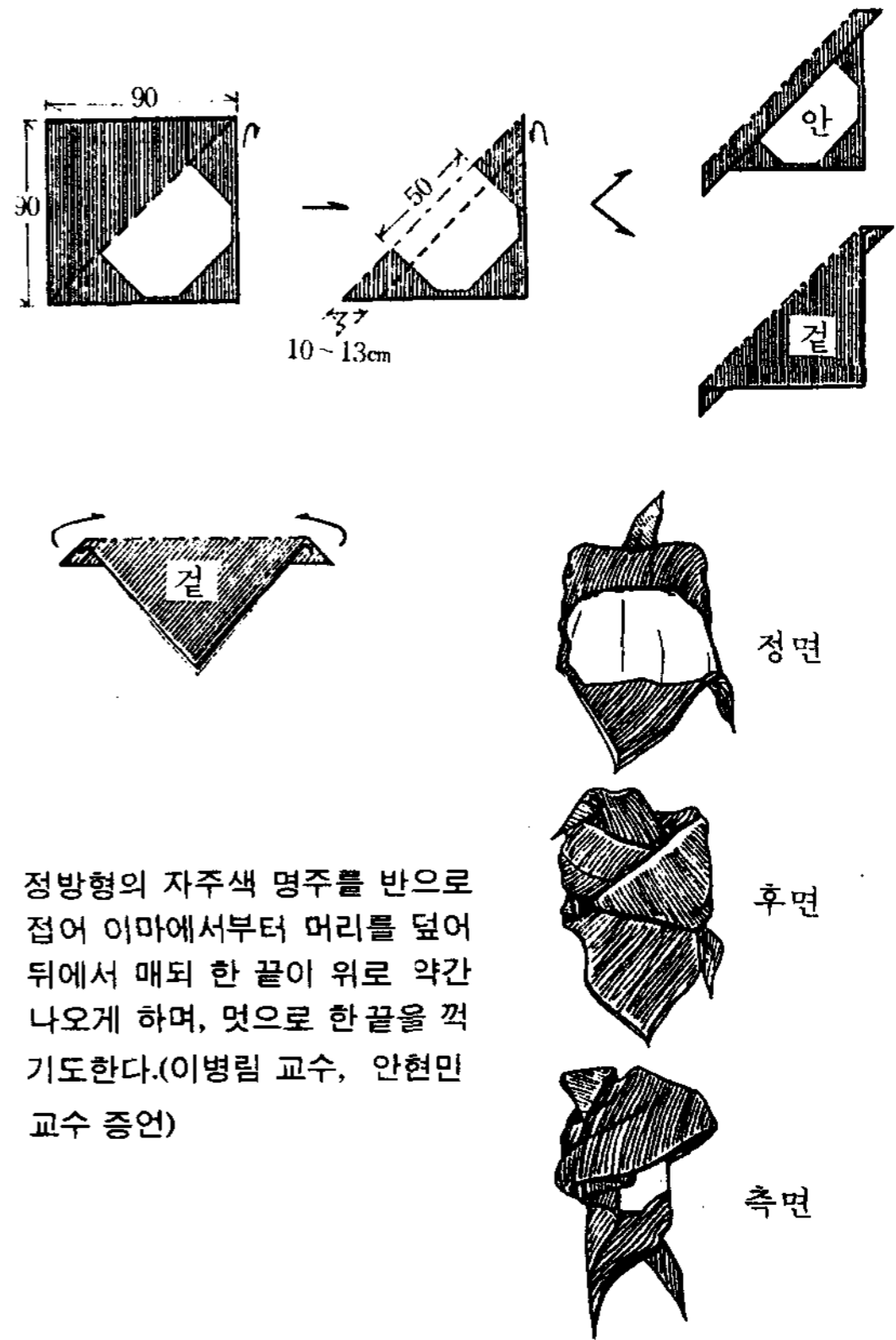
(평안도의 머리수건)



(함경도의 머리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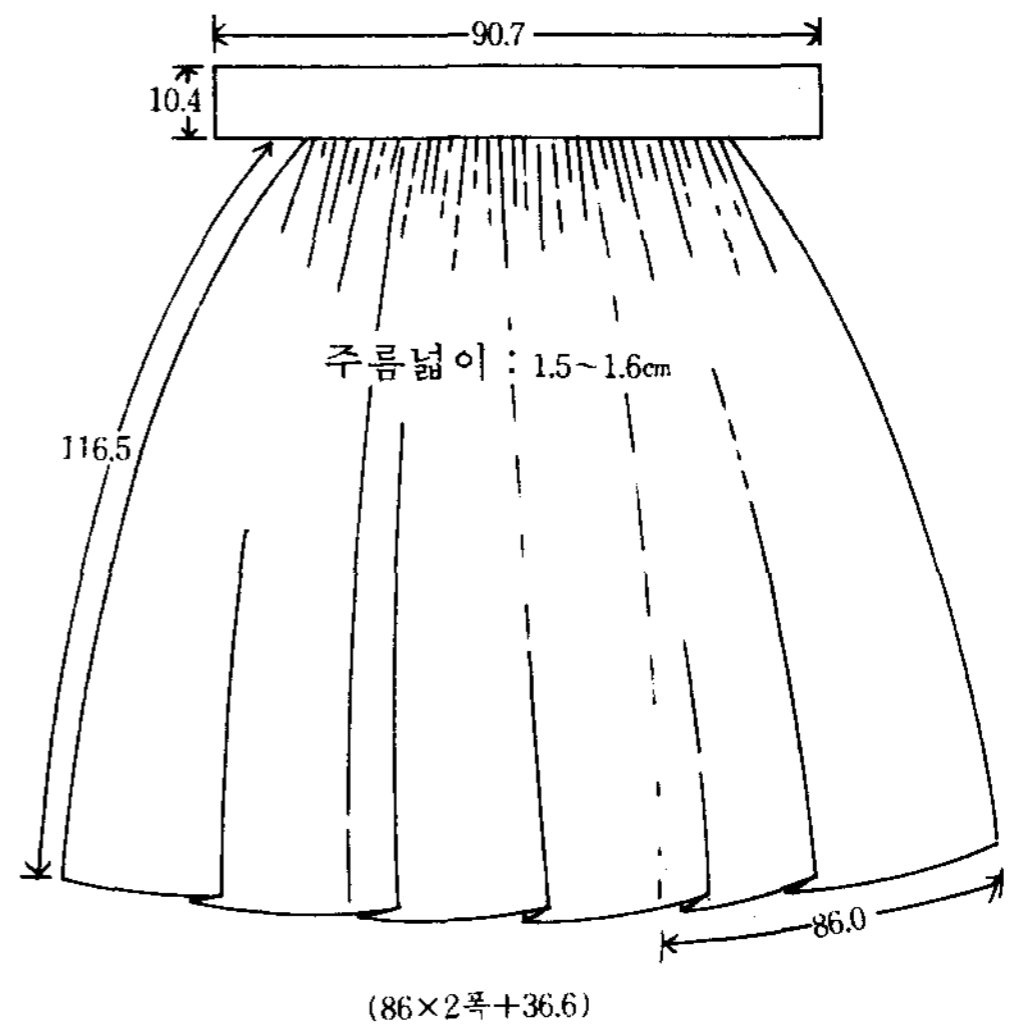


〈圖 7〉 평안도의 머리수건과 함경도의 머리수건



정방형의 자주색 명주를 반으로 접어 이마에서부터 머리를 덮어 뒤에서 매되 한 끝이 위로 약간 나오게 하며, 멋으로 한 끝을 꺾기도한다.(이병림 교수, 안현민 교수 증언)

〈圖 8〉 개성지방의 머릿보



〈圖 9〉 쓸치마

31) 안현민교수 증언.

32) 박정온여사 증언.

3) 배 자

개성에서는 배자를 입기는 하되, 갓 저고리나 마고자 만큼 애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³³⁾ 개성에서 마고자를 한 여름철을 제외한 사철 내내 즐겨 입었던 것이나 평양에서 배자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철 애용했던것과는 달리, 배자는 주로 털 배자를 겨울에 방한용으로 집안에서 입었으며, 나이 든 층에서나 입었고,³⁴⁾ 때로는 점잖지 못하다고 여겼다고 한다.³⁵⁾

배자는 개성에서 “어깨떼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³⁶⁾ 圖 10³⁷⁾은 털배자를 입은 일제시대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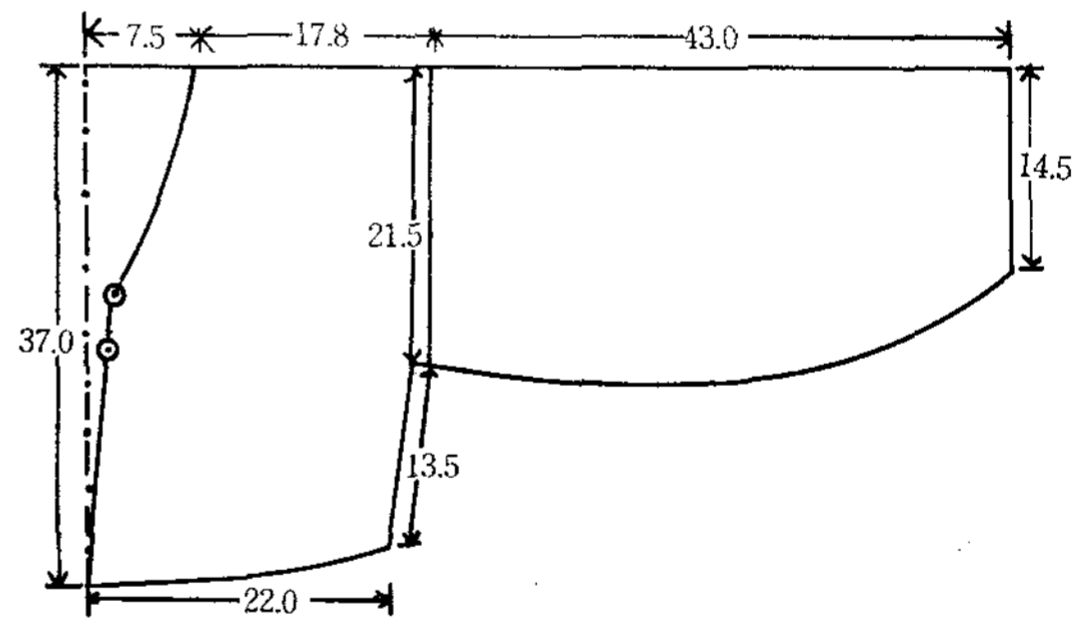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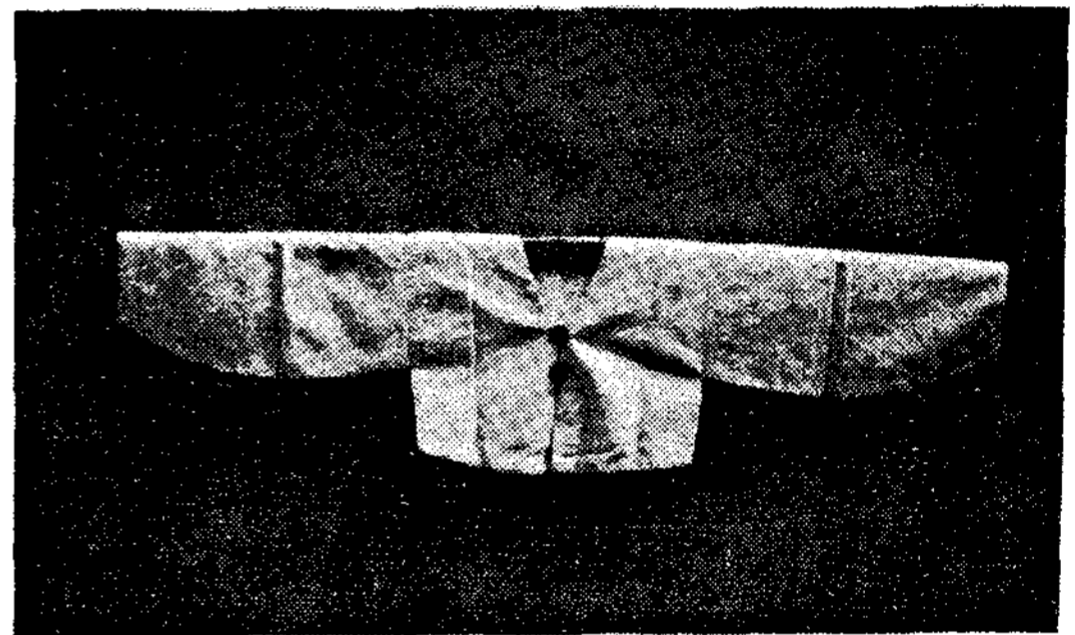
〈圖 10〉 배자를 입은 개성여인

4) 마고자

마고자는 원래 淸人의 옷이던 것을 大院君 李暉應이 保定府에서 풀려 나올 때 입고 들어와 퍼졌다

고 하며, 차차 우리옷에 맞게 변형되었다. 기호지방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입었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여자도 입었다. 개성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서울과는 달리 여자도 마고자를 애용했다.³⁸⁾ 방한을 위해 비단 겹 마고자나 솜 마고자 혹은 동물의 털을 안에 댄 털 마고자 등을 입지만 날씨가 따듯한 봄과 가을에도 멋을 내기 위해 얇은 천으로 지은 마고자를 덧 입었다.³⁹⁾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솜 마고자(圖 11⁴⁰⁾)는 1930년대에 개성에서 손 바느질로 지은 것이다. 겉은 연한 청회색 명주, 안은 흰색 무문 인조견에 솜을 두었다. 마고자의 앞뒤 길이가 같고 앞푼이



〈圖 11〉 여자 솜마고자

33) 이병림교수, 백신옥여사, 안현민교수 증언.

34) 박정운여사 증언.

35) 이병림교수 증언.

36) 「샘이 깊은물」, 1985. 2, p. 96.

37) 박정운 여사댁 가족사진. 1940년대.

38) 서울에서는 여자가 배자나 마고자 입는것을 꺼렸으며, 특히 젊은여성의 경우 더욱 보기 좋지 못하다고 여겼다. 유희경교수 증언.

39) 이병림 교수증언. 이병림 교수는 “마고자 모양의 갓저고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털 마고자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짐.

40) 유물번호25. 안현민 교수의 친구 장희정씨 마고자로 혼수품이었다고 한다.

뒷품보다 약간 작으며 섶은 별도로 달지 않았다. 국화 무늬의 은단추 2개가 달려 있다.

석주선·박물관에는 6벌의 여자 마고자와 함께 남자용 털 마고자가 소장되어 있으며, 圖 12⁴¹⁾는 해방 이전의 사진으로 털 마고자를 입은 부인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해방 이후 지은 것이기는 하나



〈圖 12〉 털 마고자를 입은 개성 여인

안현민 교수가 개성식으로 지은 여자용 털 마고자⁴²⁾가 이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겉은 중국제 옷감에 안은 갓난 아기 양털을 넣은 매우 고급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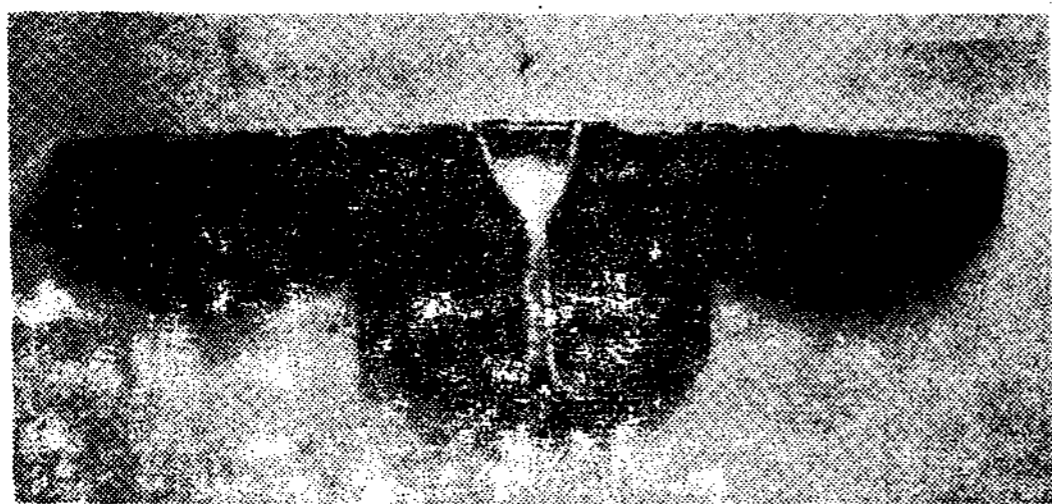


圖 13) 애양털을 넣은 털 마고자

마고자이다(圖 13).

한편 어느 지방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려대와 온양 박물관에는 여름용 개끼 마고자가 소장되어 있어, 여자 마고자가 단순한 방한용으로만 착용되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5) 갓저고리

담비의 털가죽을 포함해서 애양털이나 토끼털을 비롯한 동물의 털가죽을 기름을 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옷 안에 댄 추위막이 저고리를 통틀어 갓저고리라고 한다. 갓저고리는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가 착용했는데 그 까닭은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 옷어른 앞에서 두툼히 입고 지내는 것을 면구스러워 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남바위나 토시 따위와 마찬가지로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그 아래 지방에서 보다는 평안도나 함경도 같이 겨울이 맵게 추운 지방에서 갓저고리 등 추위막이 옷가지를 많이 지어 입었다는데, 개성에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갓저고리가 애용되었다.

갓저고리를 지으려면 우선 흘겹 비단에 광목을 대어 안감 없는 저고리를 짓는다. 다만 안에 댄 광목의 테두리는 한치 나비로 돌아가며 대어 박아 뒤집어 둔다. 이렇게 만든 저고리를 모전에 맡기고 어느 털을 넣어 달라고 하면 그곳에서 원하는 털을 여러 조각 이어 저고리 모양대로 넣어 준다. 털을 이을 때는 무명실로 촘촘히 감치는데 무명실은 매끄럽지 않아서 가죽을 꿰매기에 적당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모전에서는 갓추어 두었던 털을 이어 붙여서 털로 된 저고리 안감을 지었던 것이다. 그 털의 가죽에 참쌀풀로 풀칠을 하여 털이 아래로 누이게 하여 가죽을 광목 안감에 붙이면 갓저고리가 완성된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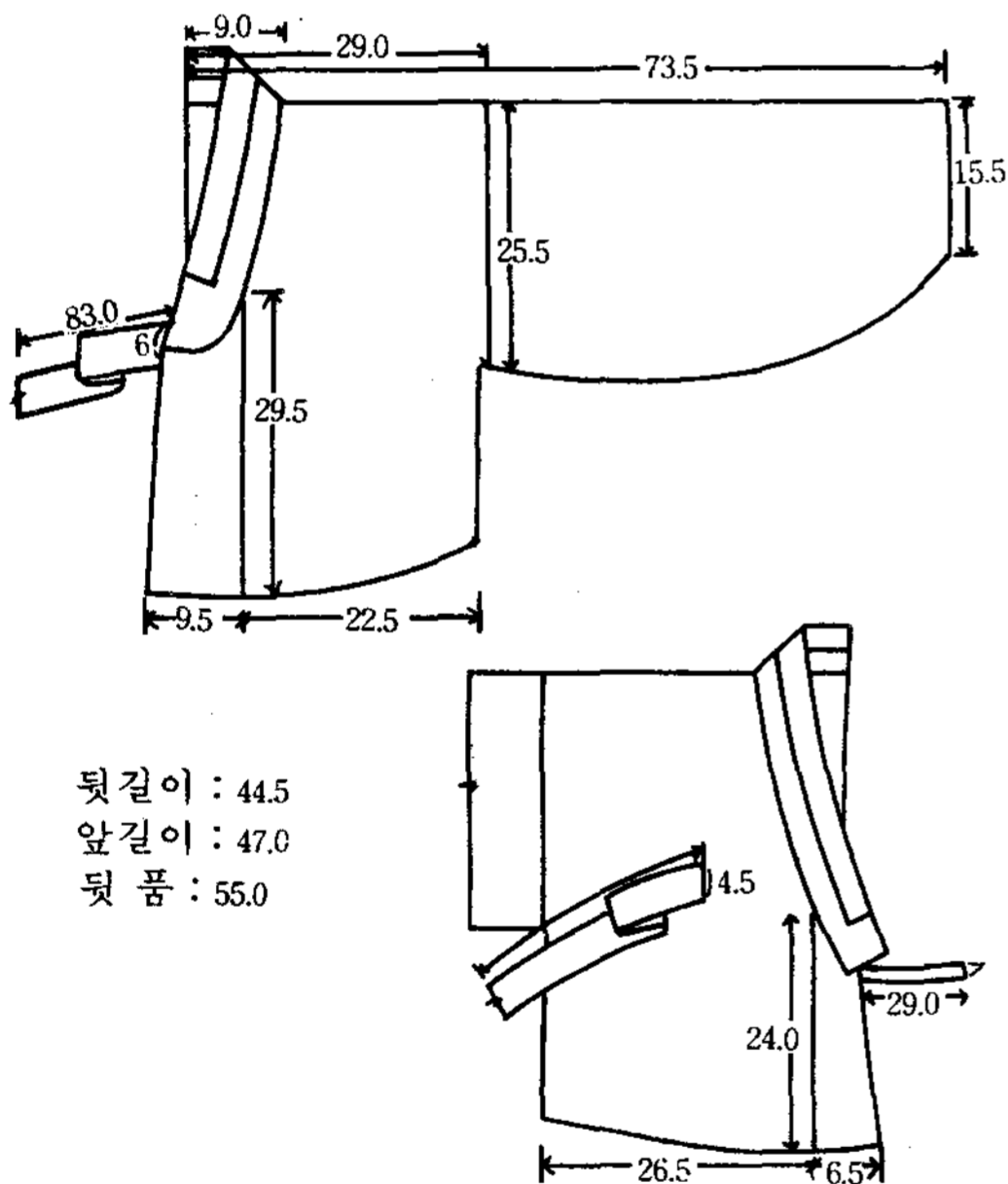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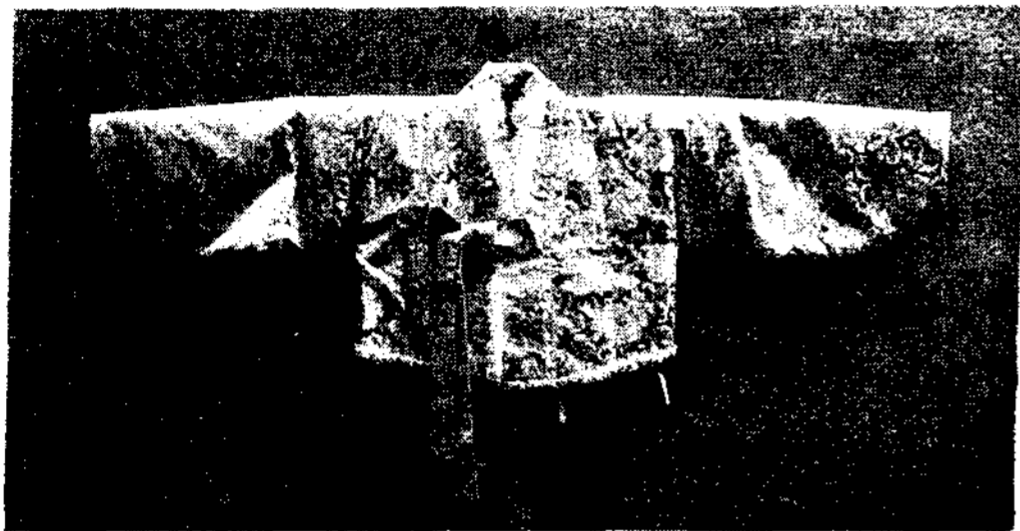
이화여대 박물관에는 갓저고리가 한벌 소장되어 있다. 이 저고리는 안현민교수의 조모인 金基堤(1870年生)의 유품(圖 14)⁴⁴⁾으로 중국 산서성에서 산 옷감과 털로 지어 개성에서 입던 것이나, 낡게 되자 1955년경 겉감만 바꾸어 만든 것이라고 한

41) 박경은 여사댁 가족 사진 중에서.

42) 유물번호 50. 생후 며칠되지 않은 어린양의 가죽을 안으로 대었다. 이밖에도 중국 옷을 마고자로 개조하다 만 유물이 이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3) 「샘이 깊은 물」, 1985. 2, pp. 96~98.

다. 회색 양단의 이 갖저고리는 안에 흰색 양털을 대었고 깃, 도련, 수구에는 뽀뽀한 털⁴⁵⁾이 둘러져 있다. 길의 안쪽에 양털을 댄 것과는 달리 소매부분에는 솜을 두었는데, 소매끝까지 옷전체에 털을 댄 것과 소매에만 솜을 대고 나머지 부분엔 털을 댄 2종류가 모두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갖저고리는 크기가 매우 큰데 이는 갖저고리가 방한용으로 맨 위에 입는 옷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圖 14> 갖저고리

6) 속 옷

개성지방의 여자 속옷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는 바지가 있다.⁴⁶⁾

증언에 따르면 속속곳, 단속곳, 속적삼 등은 다른 지방과 차이가 없었던 것 같으나, 바지에 대해서는 유물과 면담 결과에서 모두 색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바지의 허리폭보다 바지의 폭을 약간 넓게 주름 잡아, 허리를 달았을 때 허리끈 옆에 작은 아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색 형질로 싸 넘겨 가는 선이 둘러지게 만들었다. 이 선은 남색, 홍색 또는 옥색 등으로 하는데 이것을 “옆구리에 단친다”고 하였다.⁴⁷⁾ 단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음양을 나타내는 것⁴⁸⁾이라는 의견과 사후에 친정 부모를 만나고픈 염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기에 홍색 단을 하였다는 의견⁴⁹⁾이 있었다.

이화여대 박물관의 안현민 교수 기증유물중 여자 바지 4점⁵⁰⁾은 모두 아귀에 단을 친 것으로 그 중 圖 15를 제시한다.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도 아귀에 단을 댄 바지 40여점⁵¹⁾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개성 바지가 확실



<圖 15> 여자 바지

45) 깃도련 수구에 두른 뽀뽀한 털은 사슴털, 송아지털, 호랑이털 등으로 하였다고 한다. 정정완여사 증언.

46) 개성의 단속곳은 서울것과 차이가 없었다. 유물번호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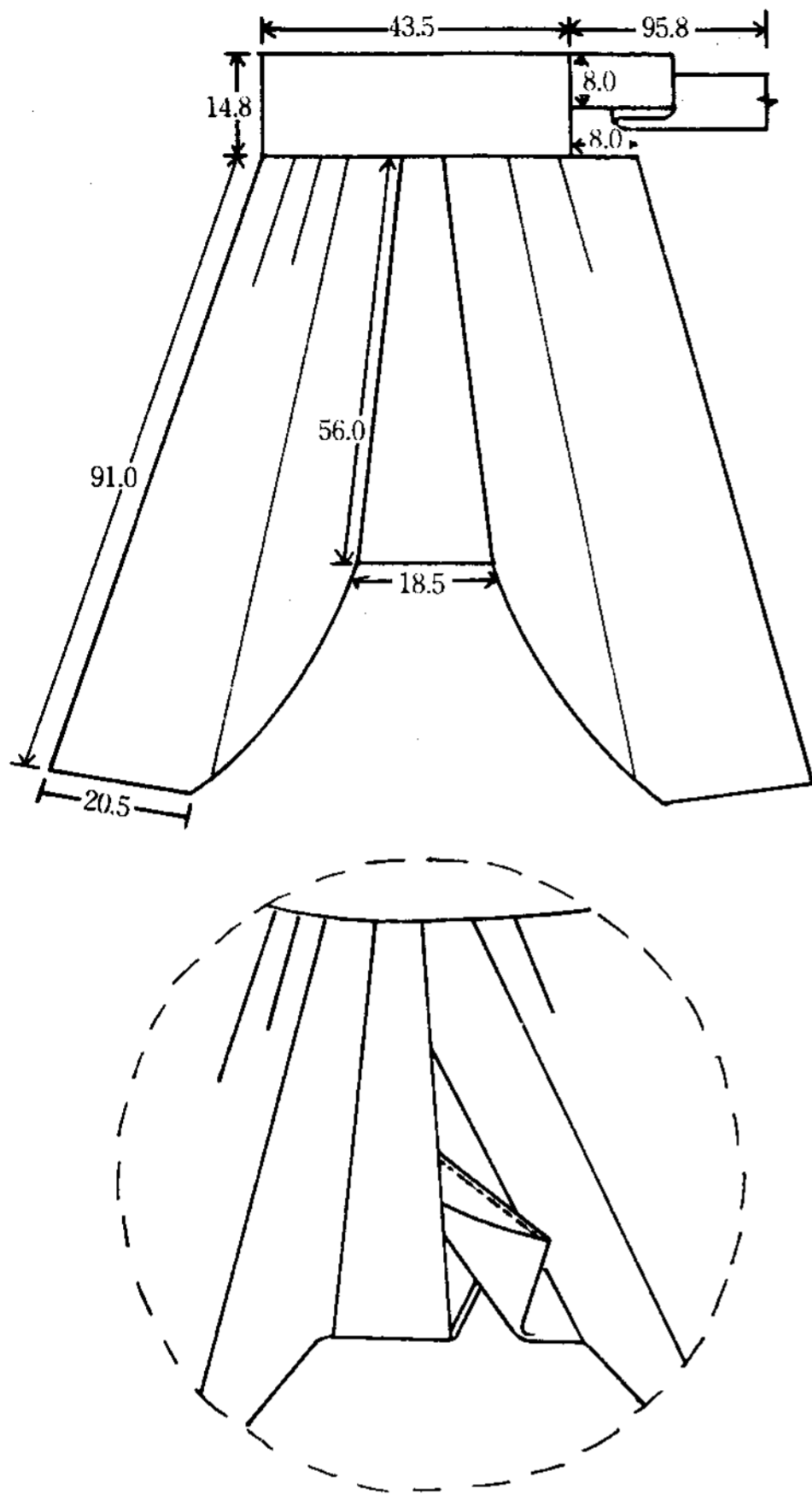
47) 박정은 여사증언.

48) 박정은여사, 안현민 교수, 백신옥 여사증언.

49) 이병림 교수의 모친이 생존 당시 “친정 어머니를 사후에 뵈고 싶어 홍색 단을 한다”고 진술 하였다고 함.

50) 유물번호 8, 9, 12, 도15는 유물번호.

51) 솜바지가 가장 많으나 겹바지, 누비바지 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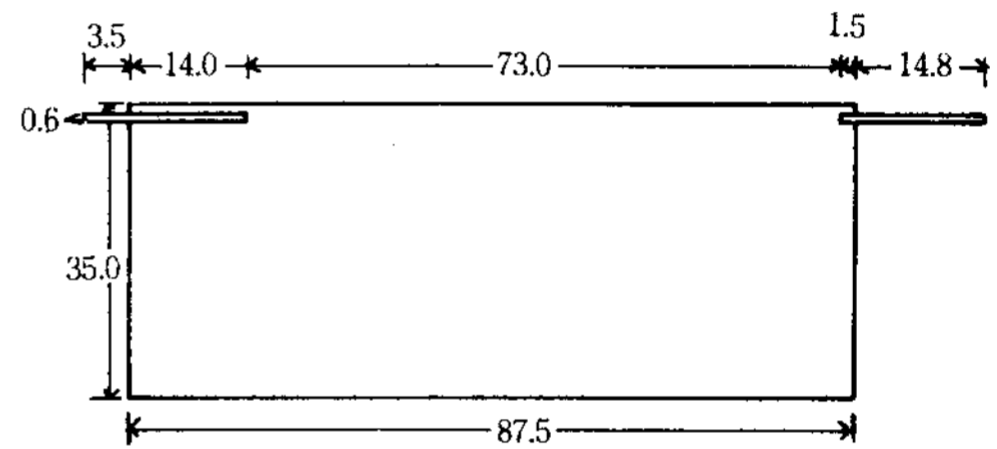


〈圖 15〉 여자 바지

한 것은 박정온 여사⁵²⁾와 백신옥 여사가 기증한 것이다. 유물번호 7112 바지는 백신옥 여사의 외조모(1853年生) 유품으로 누비 바지이다. 바지 가랑이에서부터 41cm까지는 0.3cm폭의 잔누비, 허리부분까지는 1.2cm의 누비, 허리는 3~7cm의 누비로 되어 있고, 입어서 오른쪽 아귀는 9cm 정도의 직선으로 청색으로 단을 친 것이다.

여기에 앞뒤로 진분홍으로 끈을 달아 매게 된 것이 특징적이다. 석주선 박물관 소장바지 중 30여점 가까이가 강화도에서 구입한 바지인데,⁵³⁾ 강화도가 개성과 가까워 왕래가 잦고 혼인이 빈번하였으며,⁵⁴⁾ 특히 6.25 이후 월남한 개성 사람들이 강화에 머무른 경우가 많은 점을 볼 때 개성 바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대 박물관에는 개성에서 지은 1930년대의 솜허리띠(圖 16)⁵⁵⁾가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면담자의 대부분이 바지위에 허리띠를 하는 것을 본 일은 있지만 이를 착용한 경험을 없다고 한다. 옛 식을 따라 혼수로 허리띠를 장만하기는 하되, 허리띠로 가슴을 조이는 풍속은 1900년대 이후 곧 사라진 탓으로 여겨진다.



〈圖 16〉 솜허리띠

한편 남자 어린이의 개구멍 바지 중 아귀에 단을 친 누비바지 1점(圖 17)⁵⁶⁾이 이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바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7) 기 타

개성지방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복식의 하나가 굴레이다. 굴레는 어린이의 방한을 겸한 장식적 쓰개로 돌장이를 위시하여 너댓살까지 남녀 모두 쓰었는데, 서울의 굴레는 세가닥으로 되어 있고 개성의 굴레는 아홉가닥으로 되어 있다.⁵⁷⁾

52) 박정온여사가 기증한 바지중 1930년대 이후의 것(유물번호 7190, 7191, 7193·7197)은 다른 지방과 차이가 없으나, 1910년대의 바지(유물번호 7192, 7194, 7195)에는 단을 친것이 보임.

53) 김현숙씨가 강화에서 수집한 것을 석주선기념 박물관에서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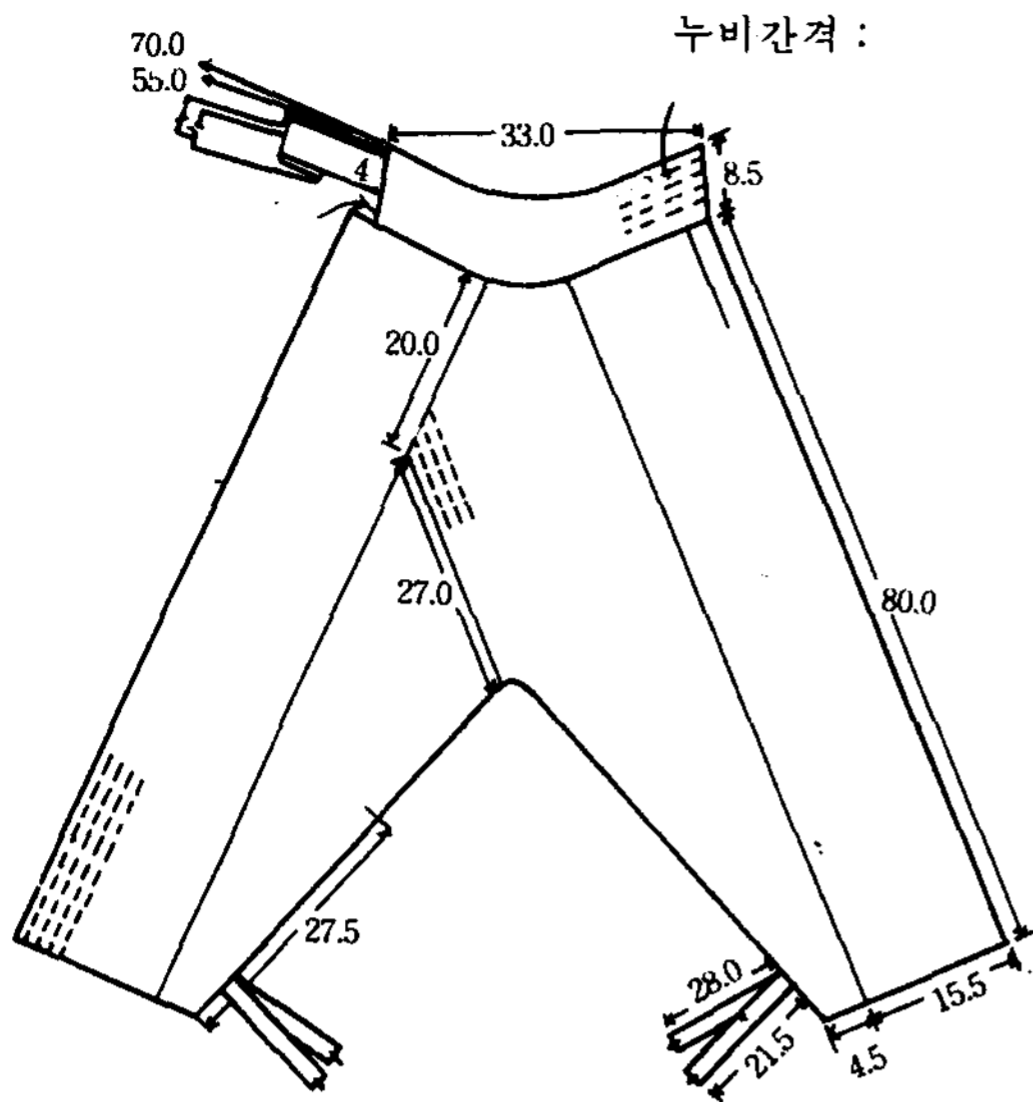
54) 강화도의 민속종합 조사에서 피조사자 13名중 혼인전 거주지가 개성인 사람이 4명이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모두 강화도 출신이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편)(1986),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생활 편」,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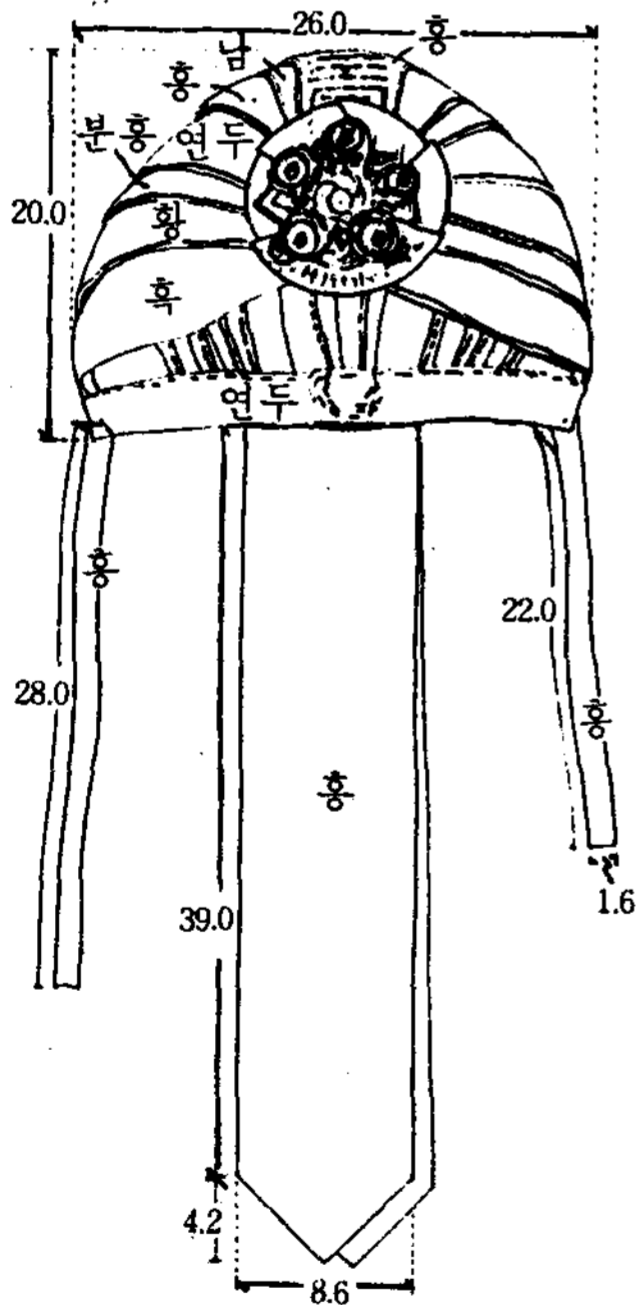
55) 안현민 교수의 조모 김기제여사의 유품. 유물번호 26.

56) 유물번호 39.

57) 유희경(1975), 「한국 복식사 연구」(서울: 이대출판부), p. 436.



<圖 17> 남아용 누비바지



<圖 18> 개성굴레

굴레에는 수를 놓거나 금박을 박아 장식하고 뒤에는 도투락 댕기를 단다. 이대 박물관 소장의 굴레(圖 18)⁵⁸⁾는 1915년 제품으로 면담에 따르면, 개성에는 굴레를 만드는 집이 있어 '굴레공장'이라고 하고⁵⁹⁾ 여기에서 굴레를 사다 썩었다고 한다. 또한 굴레에는 각 부분에 따라 명칭이 있는데 몸체가 되는 색조각을 '굴레다리', 뒤통수에 오는 세로로 된 수 놓인 부분을 '굴레뒤판', 목을 감싸는 가로 부분을 '굴레허리', 그리고 앞에 느러진 끈 장식을 '굴레끈'이라 불렀다.⁶⁰⁾

II. 결 론

개성지방의 복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성복식은 평양이나 서울 지방의 복식과는 상이한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 首飾에서 독특한 특징들을 볼 수 있었다. 즉, 머릿보, 굴레, 혼례시 예장용 수식 등에서 개성 특유의 양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았다.

둘째로는 같은 기호지방이면서도 서울과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갓저고리, 털마고자 등 皮物類가 의복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방한성이 강조되었다.

세째 혼례복 중 원삼의 형태, 수식 등이 이남지방에 비해 화려하면서, 평양지방과도 다른 양식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성이 고려의 수도로서 고려문화의 뿌리가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상업의 발달로 무역을 통한 각종 고급 보석, 모피, 직물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개성인의 검약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밀화 족두리, 진주댕기, 갓저고리 등이 애용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 등을 통한 잦은 국제교류로 진취적 자질을 갖게 되어 여성의 마고자 착용에 대해 보다 개방적일 수 있었고 혼례용 수식이나 굴레 등을 맡는 전문인이 존재하는 등 당시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던 경향이 일찍 나타났다고 본다.

58) 안현민 교수, 박정은여사 증언.

59) 유물번호 217-111-5.

60) 안현민교수 증언.